

‘오나귀’ 조정석·박보영, 해외 팬과 만난다

〈tvN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

8개국 수출…케이블 첫 해외 프로모션

美 동영상 사이트 8월 첫째주 조회수 1위
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 프로모션 추진

연기자 조정석과 박보영이 해외에서도 명성을 얻을 전망이다.

이들이 주연하는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이 최근 일본, 대만, 홍콩 등 8개국에 방영권을 판매했다. 미국의 아시아 드라마 전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드라마 피버’와 ‘홀루’ 등에서는 8월 첫째주 1위(주간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 측은 케이블채널 드라마로는 이례적으로 현지 팬미팅 겸 프로모션을 추진 중이다.

9월 한 제작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프로모션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성사될 경우 조정석과 박보영이 드라마 프로모션을 통해 해외 팬과 만나는 것은 데뷔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빙’의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에서 알콩달콩 로맨스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의 완벽한 호흡과 열연으로 드라마는 시청률 4%(8월 기준 닐슨코리아)를 넘

는 데 성공했고, 해외 팬들까지 사로잡았다. 제작진이 추진하고 있는 있는 해외 프로모션 역시 이들에 대한 현지의 관심 덕분이다.

극중 로맨스 연기로 동반 광고 및 홍보 출연 제의도 잇따르고 있다. 광고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현재 가전제품을 비롯해 의류, 음료 브랜드의 동반 모델 제안을 받았다. 광고계 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일반의 거부감이 크지 않다”면서 “드라마를 통해 사랑스럽다는 이미지를 쌓았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소비자의 호감을 자아낼 것이라고 판단해 동반 광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tvN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의 조정석(왼쪽)과 박보영.

드라마 새 화두는 ‘재회’

지진화·김현주 등 네 쌍 다시 만나

하반기 안방극장에 컴백하는 스타들의 키워드는 ‘랑데부’다. 무려 네 쌍이 짝을 6개월, 길게는 12년 만에 새로운 작품으로 재회하며 안정적인 호흡을 예고하고 있다.

연기자 지진화와 김현주는 22일 첫 방송하는 SBS 새 주말극 ‘에인있어요’에서 11년 만에 만난다. 2004년 SBS ‘파란만장 미스김 10억 만들기’에 출연한 이들은 새 드라마에서 기억을 잃은 여주인공이 증오했던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3월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에서 이복 쌍둥이 남매로 출연한 박서준과 황정음은 6개월 만에 다시 수목드라마를 책임진다. 9월16일 첫 방송을 앞둔 로맨틱 코미디 ‘그녀는 예뻤다’에서 한결 가벼워진 캐릭터를 연기한다.

영화 ‘베테랑’의 주역인 유아인과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으로 시청자의 향수를 자극한 신세경은 10월 SBS 새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로 상승세를 이어 나간다. 2012년 SBS 드라마 ‘패션왕’에 이어 3년 만이다. ‘육룡이 나르샤’에서 유아인은 조선 태종 이방원으로, 신세경은 그의 여인으로 변신해 러브라인을 전개한다.

신인시절 만나 스타덤에 올라 재회하는 커플도 있다. 이동욱과 정려원이다. 데뷔 초반인 2003년 SBS 시트콤 ‘목바로 살아라’에 조연으로 출연한 두 사람은 12년 만에 케이블채널 tvN 새 월화드라마 ‘풍선껌’의 주인공이 돼 결핍을 지닌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전작을 통해 서로의 연기 스타일을 경험하고 신뢰를 쌓은 것이 이들 커플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전작에서 보여준 화학작용이 강렬할 경우 그 잔상을 지우고 새로운 캐릭터를 각인시키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서태지 파워’ 작년 컴백 공연보다 더 후끈



‘201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둘째날 공연을 뜨겁게 달군 서태지의 무대. 약 4만5000명의 관객이 한 번에 몰려들었고 서태지는 한 달 간 연습한 완벽한 무대로 보답했다.

사진제공 | 에스엠이엔터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4만5000명 열광 한달 간 맹연습…완벽한 무대로 보답

서태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입증했다. 작년 10월, 결혼과 득녀 후 첫 앨범인 9집 ‘라이어트 나이트’ 활동의 성과를 두고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지만, 이를 시원하게 날려버렸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서태지는 8일 밤 9시30분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장에서 열린 ‘2015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둘째 날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공연했다. 자신이 주최한 ‘ETP페스티벌’의 국내

페스티벌 무대는 처음. 직전까지 수천명이었던 관객은 서태지의 무대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약 4만5000명으로 불어났다. 객석 가장자리엔 아이를 목발 태운 ‘아저씨’들도 많았다. ‘와치 아웃’으로 시작해 ‘라이브 와이어’로 끝난 19곡의 레퍼토리는 여전했지만, 그의 가창력은 유난히 뛰어났고, 밴드 사운드는 폭풍 같았다. 서태지는 공연 도중 “보통 스피커를 무대 양 옆에 하나씩 두지만, 오늘 공연에는 두 개씩 걸었다. 스피커마다 노래와 연주가 따로 들리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연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작년 컴백 공연보다 더 뜨거운 반응”이라고 입을 모

았다. 4만5000명이 ‘필승’을 ‘폐장’하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서태지는 ‘독기’ 품고 한달 간 맹연습했다는 후문이다. 서태지컴퍼니 측도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태지는 이날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아쉬움을 떨치지 못했다. 리허설을 하던 6일 오후, 주민 민원으로 애초 생각했던 것만큼 스피커 출력을 충분히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만 관객의 열광에 크게 고무됐다. 공연 후 고깃집에서 밴드 멤버들과 뒤풀이하며 기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6년 8월10일〉

SBS 송지나의 세상 속으로 국내 첫 레즈비언 주제 논란

6일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임명제청됐다. 앞서 3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동성 결혼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과 인연을 맺고 있다. 이 법원장은 부부가 지난해 5월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동성 혼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재판관이었다. 그가 대법관에 임명제청되면서 향후 사건의 향방이 새롭게 관심을 모았다.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이끈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이들 부부와 저녁을 함께했다.



송지나

1996년 오늘, SBS ‘송지나의 취재파일-세상 속으로’가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레즈비언’편을 방송했다. 1994년 결성된 레즈비언 모임 ‘끼리끼리’ 회장을 비롯해 세 명의 여성 동성애자들이 아픔과 고뇌를 털어놓았다. 이미 KBS 2TV ‘추적 60분’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지만 여성 동성애자에 관한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처음이었다. 1995년 9월에는 이주영과 이승신이 주연한 MBC 베스트극장 ‘두 여자의 사랑’이 여성 동성애자의 사랑과 갈등을 그리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에도 몇 편의 드라마가 동성애 이야기를 담았다. “엄연히 존재하는 동성애(자)의 아픔과 사회적 현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시청자의 가치 판단을 제공한다”는 의도였다.

반발은 컸다. “성적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들의 방송을 통한 주장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혼피로연’과 ‘크라임게인’, ‘해피투게더’는 상영이나 방송, 수입이 ‘하락’되지 않았다. “전통윤리의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동성애 옹호 영화”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동성애 문제는 뚜렷한 사회적 틀 안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동성애자들의 카페가 생겨나고 ‘또 다른 세상’ 등 잡지도 등장했다. 연세대 ‘컴투게더’를 비롯해 각 대학에 동성애 모임이 생겨났고 이들은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처럼 존중되어야 하며 공동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성적 소수자의 선언을 내놨다. 사회가 다양화·다변화하면서 성에 관한 담론은 이미 사회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셈이다.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김조광수 부부, 트랜스젠더 하리수 등을 초청한 것에 대해 일부 개신교 단체 등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성애 문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거리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빅마우스

●“광장히 뜻 깊은 시간이었지만 식재돼 아쉬웠다.” (연기자 이재훈)

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명필름아트센터에서 열린 ‘명필름 전작전:스무살의 기억’ 관객과의 대화에서. 영화 ‘건축학개론’ 속 수지와 키스신에 대해.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sizer

특허받은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사타구니**를 긁고 계시지 않나요?

남성은 신체조건상 음낭과 음경으로 나뉘어지는데 음낭의 아래 사타구니 주변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다습하며 스며들기(방성남성분비물)등 골팡이성 유해세균 등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된다.

시저!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

남성의 사타구니가 습하거나 가려우면 성관계시 여성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남성 실 청결은 여성의 건강과도 직결 된다. 또한 좋은 팬티를 고르는 기준이라 하면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우며 끈끈함 없이 보송보송하고 산뜻해야 한다. 남성 기능성 팬티 '시저'는 사타구니, 고환, 음경을 3단 분리하여 땀이 덜 차고 보송하게 유지해 준다. 골프, 등산, 조깅 등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종일 앉아 있는 사무직 직장인 등 모든 남성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시저를 입으면, 남자의 자존심이 살아난다.

쇼핑몰 : www.sizer.kr
문의전화 : 1577-5579

한 손으로 편안하게 주머니형 디자인

팬티 앞면의 주머니 덮개는 소변을 볼 때 허리 밴드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받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편안하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성을 위한 3단 분리 디자인

예로부터 남성의 고통을 차갑게 해야 정력에 좋다 하였습니다. 정자를 생산하려면 고통의 온도가 체온보다 2~3도 정도 낮아야 합니다.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시저는 **사타구니와 고환, 고환과 음경, 음경과 하복부**가 확실하게 3단 분리되는 디자인으로 통기가 우수하여 땀이 덜 차고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난 기능성 팬티입니다.

항균, 항습, 항취 ATB-100

물을 빨리 흡수하고 배출해 습기로 인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뛰어난 항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ATB-100원단에는 은사까지 함유되어 높은 항균력을 지니며 여러번 세탁해도 항균력이 떨어지지 않는 기능성원단입니다.

특허받은 팬티 시저

본 발명은 남성의 음경과 음낭이 각각 격리됨으로써, 땀에 의한 불편함이 해소되어 남성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발명특허 제 10-1212608호

시저골드 SIZERGOLD	시저레몬 SIZERLEMON
시저실버 SIZERSILVER	시저네비 SIZERNAVY
시저블루 SIZERBLUE	시저와인 SIZERWINE
시저레드 SIZERRED	시저지브라 SIZERZEBRA
시저웨이브 SIZERWAVE	시저웨이브스카이 SIZERWAVES